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		배포일시	2019. 5. 16. (목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	담당자	•과장 김동준, 사무관 김종욱, 주무관 안승현 •☎ (044) 201-3823, 3832, 3827
	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	담당자	•과장 강주엽, 서기관 나민희 •☎ (044) 201-3804, 3792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버스대책, 국민안전·투명성 높이고 국민 부담 최소화할 것

-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채용 소요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(고용노동부), 고용장려금(경기도) 등을 지원하고, 버스 요금 인상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도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.
-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 -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 뿐만 아니라,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.
 - 다만, 일각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은 광역버스 이외에 일반 시내버스까지 모두 포함하여 추산*한 것으로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릅니다.

* 준공영제 미시행 10개 지자체의 버스대수(일반+광역) 약 2만 4천대(A) 중 지자체의 일반광역버스는 약 2,500대(A의 약 1/10)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종욱 사무관(☎ 044-201-38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